

썸1. HERSTORY. 기차 타고 택시 타고 달려달려 모인, 작은 이층집 카페

오늘은 <나 일할 때>, <내가 일해 봐서 아는데>, <일하는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유흥업소라든지 어디에서건 자기가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길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 동안 어떤 일, 어떻게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 나중에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나와 경험이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에만 바탕이 되어서 어떤 주장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있으니까 서로의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오신 분들의 경험도 나이대도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다양한 업소에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3-4분씩 짧게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애길 좀 해주세요.

- 저는 업소 같은데서 일은 한건 아니고요 조건만남? 을 한 달 정도 한 게 사실 성매매 경험의 전부인데 그 한 달 동안에도 되게 처음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많은 것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무슨 애길 하죠?(웃음) **(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라든지 일을 그만둔 이유도 있을 거고.. 일하면서 들었던 느낌들..)** 저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던가 그렇진 않구요 작년에 학교를 다녔는데 여성학 수업시간에 여성가족부의 반성매매, 성매매특별법 홍보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어떤 탈성매매 여성분의 인터뷰가 지금 하는 일은 예전에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의 액수는 적지만 일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봐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섹스서비스를 제공한다는건 생각만 해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저거를, 어떤 가치편하를 스스로 하는 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어떤 경로가 없었어요 알아볼. 검사검사 그때 또 돈이 필요하기도 해서 한 달간 조건만남 했었고, 그때 까지는 아직 우울증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서, 다른 일들도 그렇겠지만 (조건만남이) 애인같은, 1일 애인 같은걸 요구하는 느낌이 강해요. 마음에 부담같은게 좀 버거워서 그만 뒀거든요. 생각키로는 아마 다시 또 생활이 힘겨워진다면 염두에 두게 될 일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 저 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열다섯 살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공장을 다녔죠. 미싱공장을. 지금 감사한 거는 그 미싱이라고 배웠다고 지금 기술을 써먹고 다니는(웃음).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을 다니면서 어렸으니까 사람들이 막 대해요. 노동력을 착취하다시피, 월급 얼마 안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왜 그런 식으로. 그때는 80년대였기 때문에 그 때 막 나왔던 게 전태일씨, 노동 운동, 그런 게 시위가 되고 그랬던 때라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보는 시점은 사회라는 거는, 나는 더 열심히 벌어서 일해야되겠다 이런 것 보다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잘사는구나.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되겠다. 근데 어떻게 벌어야 돈을 많이 버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리가 통통 붓도록 미싱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급도 절반도 안주는데 이 돈을 벌어가지고 동생이랑 엄마 아버지 다 부양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다 열아홉 살 정도 됐을 때 주위 친구들이, ◎◎에는 지역 지리상 그때 가락오케 같은 게 많았어요. 거기서 애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회사 마치고 한 8시쯤 가서 12시까지 이렇게. 월급보다 팁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먹고 살기는 괜찮다. 니도 힘든데 아르바이트로 뛰어보자 어떤노. 그래서 하루는 가봤어요. 옆에 앉아서 술 마실 이유 없고요, 박수만 쳐줘도 괜찮은 거예요. 나이가 열아홉밖에 안되니까 업주가 굉장히 나를 일 해줬으면 했지요. 어리니까. 그때는 한두 번에 끝냈어요. 근데 스무살이 딱 됐을 때,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이성도 알게 되고. 이 일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된 나이가 된 거예요. 집에는 동생들이 커가니까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시작된 게 □□에 가서 소개소 타서 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진짜 안가본 도시가 없는 거 같아요. 강원도 지역을 안 가봤을 뿐이지 경기도며 충청도며 전라도며 제주도까지. 점점점점 내가 생각을 못했던 빛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예전의 나를 못 찾는 거예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짙은 화장을 하고 옷을 야사시하게 입고 있는 내 모습에 이게 내가 맞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되돌아오려니까 그 굴레가 너무 큰 거예요. 울수가 없는 거예요. 소개쟁이가 나도 모르는 차용증을 써가지고 사장하고 둘이 도장 찍고 사인 다 해가지고, 일하는 거 거래다 그래가지고 나는 지장만 폭 찍었을 뿐인데 몇백만원 빛이 늘어나있고. 그런 악순환 속에서 마지막 ○○까지 넘어가서 이천몇백, 삼천만원 가까이 되는 빛을 지고 ○○까지 가서 만 사년 정도 그 빛을 천이백정도로 갚아요. 향

상 저는 빚을 까고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룸에서는 이제 나이 갖고 제재를 거는 거예요. 서른 나이가 많다. 그때 저는 갈 데도 없고. 친구가 그때 △△ 집결지에 있었어요. 빚은 있는데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에서는. 집결지에서 일 년 몇 개월 일 하면서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자고 밤낮 주야없이 손님을 받았어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빚이 당연히 다 갚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내 굴렌데 내가 갚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해서 진 빚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보도생활을 했어요. 엄청난 빚은 그것보다 더 했지만 거기서 보도 생활을 하면서 △△에 있는 업소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악순환이 심해지게 된 거예요. 사장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손님 테이블에 안 넣어주고 손님한테 싸인지를 강요받는, 니 보러 온 손님 아니가 니가 싸인지^{외상} 정도는 받아줄수 있잖아 하면서 그 싸인지^{외상}를 강제로 떠맡기기 시작하면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라 하면서 했던 게 터져버린 거예요. 빚을 갚다갚다 못 갚잖아요, 카드빚도 빚이니까. 업소에꺼 선불 다 끊어줬으니까. 마지막에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거는 일주일전에 내하고 만나갖고 동생하나하고 개도 빚이 육천만원이었는데 둘이 소주한잔 마셨는데 일주일 뒤에 애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참 먹먹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이틀 뒤에 사장이 체어맨 차를 사는 거예요. 가는 죽었는데. 지 때문에 육천만원 못 갚아서 ‘언니야 나는 어찌 살았으면 좋겠노, 담배를 사러 나갈래도 밖에 업주가 있다. 나는 죽어뻘음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일주일 뒤에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를 사요. 체어맨 차를. 그것도 신형을 사대요?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내가 여기서 나가야되겠다. 근데 나는 빚이 있다 말이지. 또 어딜 가야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은 악순환으로 간 데가 티켓다방을 간 거예요.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해야지 이 마음 하나 먹고 5년의 세월을 견뎠어요. 그리고 2009년 탈성매매를 선언하고 업소 일을 그만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업소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시대가 달라져서 제가 할 말이 없을 것이라,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퇴폐적이고 더 우리한테 더 고통을 주는, 그런 식의 음주문화가 더 발전이 되면 똤지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양전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술먹으러 오는, 그런 문화는 바뀌었다는 거지. 더 퇴폐적이고 더 억세고, 우리한테 고리가 되는 그런 문화가 더 발전이 될거라는 생각에 저는 그걸 막고 싶고, 지

금도 업소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운동도 하고 싶고, 그 목소리를 대신, 내가 내줄수 있다면 목소리를 내주고 싶고. 우리의 문제가, 성매매특별법이 생겼을 때 업소에 마담하고 주인들이 아가씨 다 불러요. 교육을 시켜요. 모르는 손님오면 절대 2차 나간다 소리하지 마라. 2차 나가면 너거 먼저 가라, 손님 나중에 보낼게. 콘돔 사용했다하면 화장실 변기통에다 버려라. 그런 교육까지 다 시켰드랬어요. 그래놓고 자기들 경찰한테 뇌물먹이고. 우리 보는 앞에서 경찰 델꼬 와서 술먹이고 2차보내고 다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우린 그래서 경찰도 공무원도 안 믿지만,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이 자리를 오고 싶었던 것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활동하신 분들도 오니까 제 말이 헛말이 아니라는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모여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자리가.

- 저는 가정불화로 집을 빨리 나오게 됐는데 열일곱 살에 처음 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친구 너무 아픈 거야 돈은 없고. ◇◇을 가게 됐어요. 거기 삼촌한테 처음 그거를 떼고 일을 하게 됐는데 못하겠는거야 한 보름 하더니. 무서운 거야. 도망가자고 친구한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천국이라 여기가.(웃음) 그래서 저는 혼자 도망을 쳤어요. 그 다음에 잡혔죠. 두들겨 맞고. 다시는 나 이 동네 안들어온다. 나는 학교다닐 애다.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동네가 같은, ◇◇쪽 이 학교 다니던 쪽이었어요. 주방이모 만난거야 버스 안에서. 또 끌려서 잡혀 갖고 끌려갔네? 아무 이유 없이? 일했던 애라고. 그때는 인신매매 이렇게 심했잖아요. 주방이모는 보상을 받으려고 끌고간거 같애. 나는 절대 안한다.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 이 동네 산다. 근데 그거를 안 보내주고 ■■ 까지 넘어갔어요. 팔려서. 그 당시에. 근데 친구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깡패였는데 이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녔어. 돈이 필요한 거야. 등록금을 땡간거야(웃음) 중학교 동창이 ▲▲에서 처음 일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 등록금 땡까지 등록금 벌어야된다. 그래서 ▲▲에 처음 발을 들여놨는데 그 때 처음 돈맛을 안거죠. ▲▲는 무조건 반반씩이고 계산같은거 철저하게 해줬거든요? 처음에는 돈맛을 알게 할려고 주인이. ◇◇같은 경우는 월급제에다 돈을 제대로 안주고 자기네가 적금 들어

준다고 하면서 돈을 절대 안줘요. 팁같은걸로 먹고 사는 거야 우리는. 담배 사 피고. 근데 ▲▲는 따박따박 주는거예요. 목돈이잖아. 처음에 너무 좋은거야. 학교 안가 이제(웃음) 그 욕심에 철없는 생각이었지만. 그러다 본색이 드러나는거죠. 일을 하다보면 사람이 지치고, 빛이 있는것도 아니고, 쉬고 싶잖아요. 한달만 쉬다 오겠다고. 그러면 돈을 삼사백이나 오백정도 띠어서 계산을 해줘. 너 안 올수도 있지 않냐 이 돈 받을려고 올거 아니냐 다시. 이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에서 놀다보면 한 달이 될수도 있고 한달이 넘을수도 있잖아요. 한달이 넘어서 가면 그걸 하이방비^{방값}로 까는거야. 없어 난 받을돈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돼요. 그리고 성형해라 뭐해라 꼬시잖아 막. 성형시켜놓고 돈 땡기게 해서 쉬는 기간에, 한달에 그때는 두 번밖에 못 쉬었어요. 말하고 쉬면 벌금 오십만원. 말 안하고 안 나가면 백만원. 이런식으로 착취를 한거죠 이사람들이. 어렸을때는 인식이 어리니까 여기 룰이 그런가보다 하고 따르고 반발심이란걸 생각을 못했죠. 나이를 먹게 되니까 머리가 자란거지.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주인하고 대판 싸우고. 계산받을 때, 왜 저희가 회식비를 내야돼요? 주인이 그 동안 고생했다고 회식비를 줘야 되잖아. 사줘야 되잖아 고기를. 회식비를 우리한테 이십만원 삼십만원씩 떼는거야 계산에서. 회식을 해.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니야 주인이 다 먹어. 없어. 하여튼 저는 ▲▲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서른한살까지 ▲▲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다른데 안 돌아다니고. 그래서 뭐 흘러흘러, 여성단체 만나게 돼서 언니들 도움으로 검정고시 봐서 합격하고. (대단하시네요. 저는 지금 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 언니... 열의만 있으면 금방 돼요. 전 일하면서 했어요. 언니 탈업하시고 운동 하고 싶다는 말씀에 정말... 그걸 시작하기가 정말, 모든걸 다 버리고 시작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맨날 마음속으로만, 판거 배워서 빨리 이걸 때려쳐야지. 돈욕심 안 부려야지. 이 마음이 근데 지금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포기했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 저는 애아빠랑 이혼을 했는데.. 애아빠가 업소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렇게 커왔고, 애아빠의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신 건 아니고 빼끼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를 이용을 해서 선불금이라든지 일을 시키고, 애 가졌을 때도 다방, 노래방, 거의

룸..에서 일을 했고요, 지방도 많이 돌아다녔고. 부모님이 계시긴 한데 엄마도 새엄마시고 아빠랑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린 생각으로. 일을 하면 그때그때 저는 빚이, 보드같은 식으로 일을 많이 해서 그날그날 페이도 켜고 당장 이 돈을 벌면, 돈을 안 벌면 애한테 폭력이 가해지니까 그게 너무 싫었고. 돈을 벌면 다 애한테 투자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아이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일하는 거 너무 지치고 정말 하루라도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를 못 하게 해서 너무 힘들었고. 저는 컴퓨터 생활도 애아빠한테 도망 나와서 컴퓨터 생활도 했었는데, 컴퓨터 룰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고, 퇴소했다 재입소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물론 좋은 컴퓨터도 있지만... 이렇게 살다간 정말 내 아이도 저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이가, 제가 밤에 일을 나가니까, 엄마 일하러 갔다 올게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 말 안 해주고 제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나쁜 삼촌들이 엄마 술 먹게 했구나' 그런 말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팠고.. 지금은 여성단체 만나서 정리해가고 있는 중이에요.